

현금 보유량이 높은 도시는?

국내 대표 산업단지를 보유한 지방 도시일수록 거주민의 현금 보유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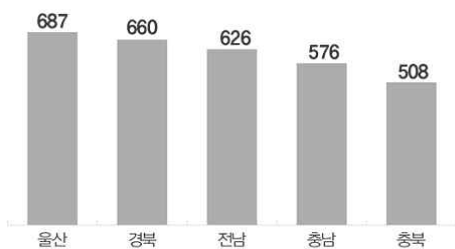
매경이코노미가 한국데이터거래소(KDX),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시도단위 예금여력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예금여력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였다. 예금여력금액이란 즉시 사용이 가능한 '소비가능금액'을 뜻한다. 즉 예금여력금액이 높을수록 쓸 수 있는 현금이 많다는 의미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보다는 지방 거주민의 현금 동원력이 높았다. 울산(687만 원), 경북(660만 원), 전남(626만 원)이 600만 원을 넘겼고 충남(576만 원), 충북(508만 원)도 높은 순으로 뒤따랐다.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대기업의 생산 단지들이 모인 지역이다.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고소득자가

많은 점이 예금여력금액 평균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은 대표적인 공업 도시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 그리고 공장에 납품하는 관계사들이 밀집해 있다. 경북은 포항에 국내 최대 제철소 중 하나인 포항제철소가 자리한다. 구미 일대의 산단에도 공장들이 많다. 전남 광양 지역에는 광양제철소, 여수 지역에는 화력산업단지 등이 몰려 있다. 반면, 집값이 높아 대출 규모가 큰 수도권 지역은 채무상환금액이 다른 지역 대비 높았다. 지난해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세종시(47만 원)에 이어 경기도(41만 원), 인천(38만 원), 서울(36만 원) 등이 채무상환금액 규모가 컸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제주도(53만 원) 역시 1인당 대출 상환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었다.

현금은 수도권 시민보다 지방 시민이 더 많아요
월평균 예금여력금액 보유 규모 1위 울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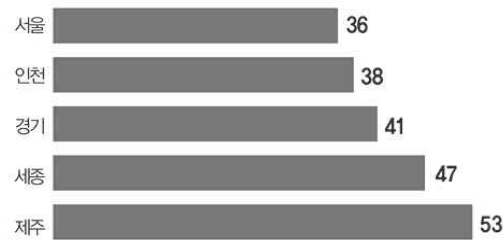
(단위:만원)



*월평균 예금여력금액 = 소비가능금액
*자료: 한국데이터거래소(KDX),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대출 상환 규모는 제주도, 수도권이 높아

(단위:만원)



*월평균 채무상환금액
*자료: 한국데이터거래소(KDX),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퇴근 후 업무 전화 받은 적 있다”

직장인의 80% 이상이 업무 시간 외에 메시지로 업무 지시 등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가 직장인 10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3.5%가 “퇴근 후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64%는 퇴근 후 업무 연락이 와서 답장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업무 시간 외 메시지 금지’ 법제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응답과 과잉 규제라는 응답이 정확히 50%의 비율로 나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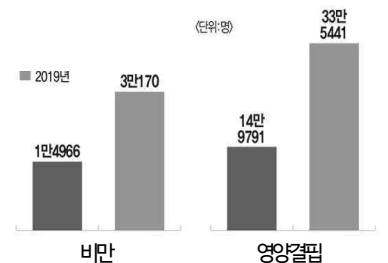
“퇴근 후 업무 연락받은 적 있다” (단위:%)

직장인 1056명 대상



자료: 인크루트

비만·영양결핍 모두 2배씩 늘어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만 환자와 영양결핍 환자가 지난 4년 새 2배 이상 동시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월 21일 발표한 ‘2017~2021 영양결핍과 비만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비만 환자는 3만170명으로 2017년 1만4966명의 2배 이상 늘었다. 심평원은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섭취 증가와 함께 운동 부족 현상이 심화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영양결핍 환자는 지난해 33만5441명으로 2017년 대비 2.2배 늘었다.

(출처: 매경이코노미)

내 인생의 한 구절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시다”

최승진
(월드와이드교회 전도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중에 제 안에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믿어지고 받아 들여졌으나, 어떤 것은 이해도 안 되고 읽는 것조차 힘들기도 했습니다. 봐야만 믿고 이해되어야만 행동하던 저의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힘들어했던 성경은 ‘레위기’와 ‘잠언’이었습니다. 레위기를 한 번 읽어 본 후에 갖게 된 생각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루하다’, ‘이 책은 왜 있을까?’라는 정도였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해서 잔뜩 기대하며 읽었지만, 역시 딱 한 번 읽고 난 뒤부터는 잠언만 건너뛰며 성경을 읽기도 했습니다. 늘 관심 있던 성공학, 인간관계이론, 마인드 컨트롤 등과 별다를 게 없는 책이라고 규정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열심은 있으나 제대로 된 지식은 없다 보니 여전히 제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어느 날 우연히 보게 하신 성경구절이 잠언 30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 구절 중 제 뇌리에 말 그대로 꽂힌 부분은 ‘다 순전하며’의 ‘다’였습니다. 그때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다라고? 그렇다면 모든 성경이 다 나에게 유익하다는 말인 거잖아? 그렇다면 레위기도 잠언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 이 깨달음은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제 선입견 탓에 밀쳐두었던 레위기, 잠언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책이라고 믿어진 후부터는 보이고, 이해되고, 읽을 때마다 점점 더 재미있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섬세한 하나님의 가이드 맵인 레위기, 인생사 지혜를 말하는 수많은 이론과 책들의 원본 중의 원본이랄 수 있는 잠언 말씀...

이 경험 이후로 성경 66권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다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이해가 안 되어도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 믿고 말씀 앞에 머무는 것과, 말씀을 획 지나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다’ 순전하십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 되게 하라

다시 6.25를 맞습니다. 폐허를 딛고 일어난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 정체성을 한번 더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자유대한민국'을 수십 번 외치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불행했고 가난했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거나, 방어와 수세에 급급하며 살아왔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란 말은 국제사회에서 '힘이 없는 민족'이란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열강의 대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용케도 버텨온 것은 은혜입니다. 뿌리 깊은 사면의 나라에서 한과 음습한 비명이 이 산하를 덮었던 무당의 나라에서, 불교와 유교 신앙은 몽환적 이생도피적 사상을 더 깊게 만들었고, 그 결과 생존투쟁 무력화에 일조했습니다. 유교의 조상신 숭배는 귀신문화를 가정까지 초대, 가정에 신바람을 일으키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이 땅은 사회와 음모, 술수가 늘 저류로 흘렀고, 세종 대를 제외하곤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일본의 야수의 손길이 미치려 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공흥을 베푸십니다. 돌보는 이 없는 버려진 땅에 미국, 영국, 호주 등 선교사들이 나라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에 의해 장차 대한민국의 독립을 준비할 인재가 길러집니다. 무엇보다 진리의 빛이 이 땅에 비칩니다. 비로소 이 백성들이 개안하며 성령을 체험한 리더십의 등장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새로운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승만의 공과는 역사에서 균형있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암담한 시기에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체계를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태동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신생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이런 절대 빈곤국이 선진국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세계 기술선도국으로 진입한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근현대사에서 두 번의 걸쳐 국가 소멸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일제의 탄압과 병합이고 하나는 동족상잔의 6.25사변입니다. 이런 국난의 위기, 모두 우리 힘으로 이것을 극복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6.25사변은 하나님의 징계이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하나님의 연출에 따라 세워진 거룩한 새 디자인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6.25 전쟁에 나타난 기적들이 그 증거입니다. 김일성 군대 12만 명과 소련이 제공한 탱크 246대, 중국의 후원을 앞세워 선전포고 없이 침공합니다. 100%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기적이 대한민국의 초석을 이룹니다. 첫째, UN군의 신속한 참전이 기적입니다. 미군을 위시한 UN군의 신속한 참전은 상식으론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이었습니다. 유엔 기구 중에는 5개국 안전보장위원회에는 만장일치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국 회의에 소련이 참석하지 않았습니

다. 그 결과 다른 4 나라 대표들이 유엔 참전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남침 중인 인민군대가 서울에서 3일간 머문 것이 기적입니다. 순식간에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이 3일간 서울에서 머물며 남쪽에서 남로당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3일간 머물렀다. 이 골든타임 기간 군대를 정비하여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주일미군이 파병될 수 있었던 점입니다.

셋째, 공산화가 될 뻔한 남한에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 기적입니다. 1945년 일본제국주의 통치가 끝나고 미군이 진주하면서 3년간의 미군정을 합니다. 이때 여론조사를 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신생 독립 국가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를 택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국민 78%가 공산주의 국가를 택하였습니다. 이에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공산당은 무려 일백만에 가까운 당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힘을 믿고 박헌영은 인민공화국 설립을 선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군정 당국은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안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박헌영 진영에서 백만에 이르는 당을 관리 운영하기에 자금의 압박을 받아 위조지폐를 찍었습니다. 당국은 위폐범 12명을 조사 결과 그들 모두가 공산당의 열성 당원임이 드러나고 그 배후에 박헌영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민심이 공산당 지지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박헌영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자 북한으로 도피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국 후 UN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1948.12월 파리 UN 총회에서 한국의 건국 승인 안건이 올라가지만 하면 이른바 공산 국가들이 필리버스터로 안건상정을 방해합니다. 이때 연설하던 소련 대표가 갑자기 목에 결절이 발병, 숨을 헐떡이며 말을 못 하게 되어 병원으로 긴급후송하게 됩니다.

이틈을 이용하여 사회자가 대한민국 건국 안을 상정

하여 찬성 48. 반대6. 기권 1(스위스)로 대한민국 건국 승인이 가결, 정식 UN 회원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넷째, 인천 상륙 작전 성공이 기적입니다. 인천항의 조건이 여러 가지로 상륙에 부적합하다는 반대였습니다. 첫째는 좁고 구불구불한 수로 때문입니다. 둘째는 한정된 진입로 때문입니다. 셋째는 인천의 조석의 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점입니다. 넷째는 인천은 큰 함정이 상륙하기에 적합한 해안이 없는 점이었습니다. 다섯째는 요새화되어 있는 월미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성공, 불리하지만 하던 전세를 단번에 전환시켜 승기를 잡았습니다.

다섯째, 남로당 서울시당 홍민표 위원장의 전향과 자수가 기적입니다. 그가 북으로 도피한 박헌영의 뒤를 이어 남로당 총책이 됩니다. 그는 49년 4월 홍민표에게 2천만 원을 주며 수류탄 일만 개로 서울시 6만 당원으로 폭동을 일으켜 9월 20일에 인민공화국을 위한 총선거를 하도록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이 승산이 없음을 알고 반대하다가 결국은 홍위원장이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자수한 후 서울시당 소속 16명의 핵심 간부들을 설득하여 전향케 하였습니다. 그후 무려 33만 당원이 자수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남한의 공산당 활동은 거의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홍남 철수 작전이 기적입니다. 철수 당시 마지막 남은 상선이었던 빅토리호는 탈 수 있는 정원이 고작 60명인 작은 배였습니다. 그러나 피난민들을 버려둘 수 없어 화물을 버리고 태웠습니다. 그 작은 배에 만 명 가까이 태우고 홍남항을 떠났습니다. 일곱째, 반공 포로 석방과 한미군사 동맹이 기적입니다. 휴전회담 중 유엔군 측은 자유 송환을 주장하였고 공산군 측은 강제 송환을 주장하였습니다. 17만 이 넘는 포로 중에서 7만 명은 송환을 원하고 10만 여 명은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 포로들이었습니다. 휴전 회담이 대한민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가 놀라는 반공포로석방이란 결단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런 결단의 결과로 놀란 미국이 한미군사동맹이 체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지기
박인용 월드와이드교회
담임목사



월드와이드교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app) 출시



언제 어디서나 월드와이드 교회 박인용목사의 은혜로운 설교와 교회소식을 내 손안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app)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법

'안드로이드 마켓'을 클릭>검색에서 '월드와이드교회' 라고 기록 후 검색하여 클릭-> '다운로드' 클릭->동의 및 다운로드'를 클릭->설치 완료 후 '월드와이드교회'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치 상태를 확인

*아이폰(iPhone) 어플리케이션(app) 'twitter(트위터)' 'facebook(페이스북)' 'me2day.net(미투데이)' 와 같은 SNS (Social Network Service) 도 곧 출시!

박인용 목사
주일설교방송 안내



• www.wwch.or.kr

• 극동방송 라디오 FM106.9

청년설교(화, 저녁 10시10분)

북한, 핵 선제공격 위협 커졌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협상과 합의들이 결국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필요한 시간만 벌여준 것은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 북한 핵개발 움직임이 알려진 1980년대부터 핵 개발을 막고자 한국과 미국은 협상, 대화, 위협, 제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백악이 무효였다. 북한은 올해 더 많은 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 핵실험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능력은?

북한의 현재 핵 능력이 핵무기 45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핵능력에 대한 정의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대신에 개별 핵보유국이 가진 핵무기의 종류(다탄두, 파괴력), 보유 숫자, 투발수단(ICBM, SLBM, 장거리 폭격기 등 유무) 등으로 핵 능력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 (1) 무기급 핵물질 확보, (2) 고풍장비 기술 확보, (3) 여섯 차례 핵실험 실시, (4) 운반수단 보유, (5) 초보적 수준의 수소폭탄 기술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2027년 핵무기 최대 242개 보유 전망

한·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 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북한 핵무기 위협대응’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2027년 북한 핵무기 보유량을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의 핵무기는 20~60개이며 수량을 꾸준히 늘려왔다.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탄두를 확보할 것이라 예상도 있었다.

보고서는 핵무기의 원료인 핵 물질 생산량을 바탕으로 핵무기 보유량을 추정했다. 앞서 미국의 북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2016년 기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21.3~39.6kg으로 추정했다. 이를 근거로 2019년 북한은 30~63kg의 플루토늄을 보유했을 것으로 계산했다. 또 다른 미국의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2016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보유량을 175~645kg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2020년 현재 67~116개로 가정하고 매년 적게는 12개씩, 많

게는 18개씩 늘려 2027년 151~242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단, 보고서는 북한의 향후 핵무기 보유 전망은 물론 현 보유량 추정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가능한 5가지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협박·강압·억제 위한 핵무기 사용

북한은 핵무기로 한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도록 협박할 수 있다. 서해 5도 중 한 곳을 점령한 뒤 한국이 탈환하려고 시도하면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할 수도 있다.

② 제한적 핵무기 사용

서울을 핵 인질로 삼고 주요 도시에 대한 핵 공격을 벌일 수 있다.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도시도 핵무기 표적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수천 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것으로 믿는다.

③ 핵무기를 사용한 전면전

북한은 40~60개의 대규모 핵무기로 한국의 군사정치적 목표물을 기습 공격해 군사력과 지휘통제 시설을 무력화한 뒤 한국을 침공해 항복을 받아내기를 원한다. 한·미 양국이 북한 지역에 대한 반격 작전을 벌인다면 북한은 핵 사용 확대를 위협할 것이다.

④ 미국의 핵우산 보장 저해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의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저해할 수 있다.

⑤ 핵무기 확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핵무기를 확산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경제 제재로 보유 외환이 바닥난다면 핵무기를 외부에 팔 수 있다.

북한, 핵탄두 소형화 완성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미 무게 400~500kg가량 되는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경

량 핵탄두 제작을 완성한 상황을 포착했다. 통상 핵탄두 소형화의 기준은 스커드-B급 단거리미사일(사거리 300km) 탑재 기준을 적용해 직경 90cm, 탄두 중량 1t 이내로 평가한다. 핵탄두 소형화는 북한이 10년 넘게 심혈을 기울인 ‘게임체인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소형화까지 검증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비약적으로 커진다.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실전 배치돼 위력을 발휘하려면 핵탄두 소형화가 필수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물론이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함께 ‘대남 타격 3종 무기’로 불리는 북한판 에이태키키키(KN-24), 초대형방사포(KN-25)에도 전술핵무기가 탑재될 수 있다는 것이다. KN-24와 KN-25는 KN-23보다 탄두 직경이 짧고, 중량이 적다. 핵탄두 소형·경량화는 여러 표적에 대한 동시다발적 타격이 가능한 다탄두 기술의 핵심이다. 향후 우리 방공망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 연

1) 북한의 서막

1956년 2월28일 북·소련 ‘핵연구소 협정 체결’
1989년 6월5일 프랑스 위성 영변핵시설 촬영 및 공개
1991년 12월31일 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1년 5월25일 IAEA 북 핵사찰 실시(6차례)

2) 1차 북핵위기

1993년 2월6일 IAEA 중대한 불일치 발견
3월12일 북, NPT탈퇴서한 UN안보리 제출
1994년 3월19일 박영수 북대표, ‘서울 불바다’ 발언
6월14일 미 장관급 회의 중 ‘대북 공격 검토’
6월15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방북, 김일성 회담
10월21일 북·미, 제네바 합의(북핵 동결, 경수로 제공)

3) 2차 북핵위기

2002년 1월29일 부시 미대통령, ‘악의 축’ 발언
5월21일 미 국무부, 북 테러 지원국 지정
2003년 1월10일 북, NPT탈퇴선언
2차 북핵위기 시발점
2005년 2월10일 북, 핵무기 보유선언(6자회담 중단)
2005년 9월19일 9·19 공동성명

4)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1차 핵실험

2006년 7월5일 북,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
10월9일 북, 1차 지하핵실험(풍계리)
2007년 2-13, 10-3 합의 발표

5) 2차 핵실험, 대북관계 경색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2009년 4월5일 북 장거리로켓(광명성2호) 발사
5월25일 2차 핵실험(풍계리)
2011년 12월17일 김정일 사망

6) 김정은의 부상, 계속된 핵미사일 도발

2012년 4월13일 북, 광명성 3호 발사
2013년 2월12일~2017년 9월3일 : 북, 3~6차 핵실험
2017년 7월4일 북,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4형 발사
11월29일 북, ICBM급 화성 15형 발사
2021년 9월28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발사
10월19일 미니 SLBM 발사
2022년 1월19일 2018년 선언했던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 시사
1월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고각 발사

◁북한 핵시설에 핵 활동에 대한 IAEA 사무총장 보고서 요약▷

구 분	2018 보고서(08.20)	2019 보고서(08.19)	2020 보고서(09.30)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2015년 12월부터 가동 징후 포착	2018년 12월 초 가동징후 미포착
	방사화학시설	2018.4~5 가동 징후 포착	가동 징후 미포착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징후 미포착	차량 이동과 화학물질 이동 포착. 재처리 활동은 없음
	실험용 경수로	가동 징후 미포착	가동 징후 미포착
	원자로 냉각시설	2017년 말 구룡강 인근 댐 건설 포착	2018.9~11 구룡강 인근 건설 활동 포착
평산	광산/정련시설	2017년 말 구룡강 인근 댐 건설 포착	2020.4, 냉각시설 시험 포착. 원자로 가동 시점 특정 불가능
평양 인근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징후 포착	가동 징후 포착

자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자녀 교육, 기독교 대안학교로

크리스천 부모들의 가장 고심되는 부분은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제도권 교육 아래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들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은?

기독교형 대안학교의 교육이념은 한마디로 '신본주의 교육'이다. 일반 교육에서 강조하는 '인본주의'와는 대조되는 부분으로 교육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자연히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도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기독교형 대안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식하도록 가르친다. 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실제로 깨달아 알고, 이 세계관을 실천하고 발전시킬 배경을 교실이 제공한다. 또 교사와 학생이 서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섬기는 그리스도인 지체가 되도록 한다.

기독교형 대안학교의 교육 목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에 근거한 기독교적 삶의 비전과 실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양식을 탐색하는 것이며 둘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사회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학생들이 성경적 관점에서 개인적, 또는 공동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기독교적 원리와 조화를 이루는 가치관을 개발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에 헌신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격려하며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한다.

미션스쿨과 기독교형 대안학교의 차이

미션스쿨과 기독교형 대안학교는 기독교적 정신에 따라서 세워진 학교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미션스쿨은 공교육의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교육과정이나 교육행정, 전반적인 교육환경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즉 예배, 성경공부 시간 외 교육 활동은 공교육과 같은 체제이다.

그러나 기독교형 대안학교는 모든 활동에 있어 기독교적인 안목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하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학교의 주인으로 복음의 진리 위에서 모든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독교 국제/대안학교

1 웨마기독교학교

-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바른 가치관 교육·미국 졸업장 취득 과정 운영
- 경기도 양주시 소재 |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 교육과정은 미국대학 진학 준비, 텍사스 주립 인증 교육과정이다. 졸업을 위해 학생들은 최고 24 인문과정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매년 성경 수업의 학점

취득도 필요하다. 국어, 사회의 정체성 교과 수업과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영문학의 핵심교과 수업과 예술(미술, 합주), 컴퓨터, 체육, SAT의 선택교과 수업이 있다. 방과 후 활동은 학생회, 동아리 활동, 축구 등이 있으며 학교 학생회 활동과 예배 스템(찬양인도, 반주(건반, 드럼, 기타, 싱어 등))으로서의 활동의 기회도 주어진다.

2 사사학교

- 시대가 필요로 하는 영성·인격·실력·섬김을 겸비한 기독교 인재 양성
- 충남 금산군 소재 | 중·고등학교 6년(학년당 30명) 사사학교는 하나님 창조하신 구조에 따라 성(聖)·애(愛)·덕(德)·지(智)·정(情)·미(美)·체(體)의 7가지 가치를 균형 잡히게 함양시키는 교육을 한다.

3 조이크리스천 센터학교

- 미국기독교커리큘럼(SOT)을 채택한 곳 중 매년 SOT '최우수학교' 중 하나로 선정
 - 서울시 마포구 소재 | K3-K5 유치원과정,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
- 조이크리스천센터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ACE가 46년 전 최초 개발하여 전 세계 145개 국가 7300여 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기독교커리큘럼(SOT)을 통해 유치원부터 대학 진학까지 미국 학교 시스템의 정규 과목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이 커리큘럼은 과학적인 진단평가로 현재 학생의 각 과목별 수준을 파악한 후, 학생 자신의 주도 학습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을 완수하기 위해 원어민 교사를 중심으로 여러 관리적 도구를 통해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4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 14년 연속 졸업생 미국 크리스천대·명문대 합격
 - 경기도 부천시/인천 남구 문학동 | 유치부(6-7세)/초·중·고등학교 과정/아이비리그 진학 과정
- 미국 크리스천 명문대학 밥존스 커리큘럼과 교재 사용, 미국 교육부 공식인가 학점·학위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AACCS(미국크리스천학교연합회), NACSAA(북미크리스천학교협의회) 정식 인가학교이다.

5 LboT기독교혁신학교

- 1년에 1백 권 책을 읽는 인재 '백권 캠프의 기적'
 - 경기도 광주시 소재 | 초5~중1 기초과정, 중2~고3 프레임 연구과정
- 백 권 아카데미: 일 년에 백 가지 텍스트(책과 영상 등)를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학교이며, 살아갈 날들을 준비하는 QUEST(LboT 교과), 자기 주도 연구, 팀 프로젝트를 하는 연구중심학교, 도심과 맞닿은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기숙형 생활 공동체, 요리와 음악과 예술이 삶이 되는 학교이다.

6 꿈꾸는 음악학교

- 다음 세대 찬양사역자를 세우는 기독교 음악전문 대안학교
 -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 중1-고3 음악 전문과정
1.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교훈 아래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세운다.
 2.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행함이 있는 신앙인으로 키운다.
 3.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음악을 들고 땅 끝까지 나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훈련한다.

이대 부속 초등학교

이화, 킬링필드에 사랑을 심다

이대부속초등학교는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메리 F.스크랜턴 부인이 대한민국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창립하였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1955년 4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설립되었다. 이대 부초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의 미래 사회에 빛과 소금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심 교육과 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한다. 학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6학년 때에는 비전스쿨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은사, 관심사, 재능에 대해 탐색하고 비전을 품도록 하며, 이를 사명선언문으로 작성하여 학급 친구들과 부모님 앞에서 선포하는 사명선포

식을 실시한다. 해마다 6학년 어린이들은 '세빛선교부'라는 이름으로 캄보디아의 이화스령 초등학교에 선교봉사를 간다. 이화스령초등학교는 2009년 이화부속초등학교 총동창회와 아시아교육봉사회(VESA)가 캄보디아에 설립한 학교이다. 이화스령유치원 설립을 시작으로 초·중·고등학교가 차례로 세워졌다. 이화스령학교는 59만5041m²(18만평)면적의 이화여대보다 넓다. 100년 후를 내다보며 부지를 구입한 것이다. 캄보디아의 교육 인프라는 75~79년 이어진 크메르루주 대학살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전국적으로 교육시설은 부족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낮다. 가장 상처받은 캄보디아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사랑을 전하고 있다.

퇴직연금 방차? 디폴트 옵션이 해결

2021년 12월 9일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디폴트옵션 도입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사내에 쌓던 퇴직금을 회사 밖의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복리후생제도이다.

디폴트 옵션에 대해

디폴트 옵션이란 무엇인가?

퇴직연금을 장기간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근로자가 원할 경우 정부 당국의 인가를 받은 적격 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위해 제공하는 기본 선택권이다.

디폴트 옵션으로 퇴직연금 원금이 손실 날 수 있다.

장기투자 자산인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있어 단기적인 평가손실은 감내할 수 없는 위험요인이 아니다. 20년, 30년 장기로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경우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해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오히려 초저금리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원리금 보장상품으로의 장기 예치는 노후 은퇴자산 확보라는 퇴직연금 제도 목적에도 결코 부합 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이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펀드로 자동 투자될 수 있다.

일정 기간까지 근로자의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전에 지정된 펀드에 투자해 적립금을 운용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현재는 DC형 운용 방법 미지정 시 고용노동부 표준규약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상품(은행 예·적금 등)에 적립금이 재예치된다. 하지만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에 투자되게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실적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념	회사가 근로자 “평균임금×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회사가 기준책임준비금 60%를 금융기관에 예치, 금융기관이 지급의무가 있는 범위의 100% 지급	회사가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면서 근로자 책임 하 금융상품 운용하는 방식
운영방식	근로자 퇴직 시, 회사가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	근무기간 중 일정금액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금융기관이 퇴직급여 지급	
산정방식	퇴직 전 최근 3개월 평균임금×근속연수	(퇴직금과 동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적립. 가입자 개인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짐
지급방식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	
적립금 운용주체	-	사용자	근로자
중간정산 (중도인출)	가능(일정요건 하)	불가(일정요건 하 담보대출가능)	가능(일정요건 하)

배당상품으로 자동 투자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원금손실을 우려하는 가입자라면

디폴트 옵션에 대한 원금손실을 우려한다면 가입자가 원리금 보장상품을 직접 운용지시하면 된다. 디폴트 옵션은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가입자의 선택권을 전혀 침범하지 않는다.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2.58%, 5년간 연환산수익률은 1.85%였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89.3%인 원리금 보장형상품의 지난해 수익률은 1.68%에 그쳤지만 전체 비중의 10.7%에 불과한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10.67%에 달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 자산의 수익률은 등락을 보일 수 있지만 퇴직연금의 장기투자 성격을 감안하면 이러한 변동성은 평탄화 된다.

디폴트 옵션 도입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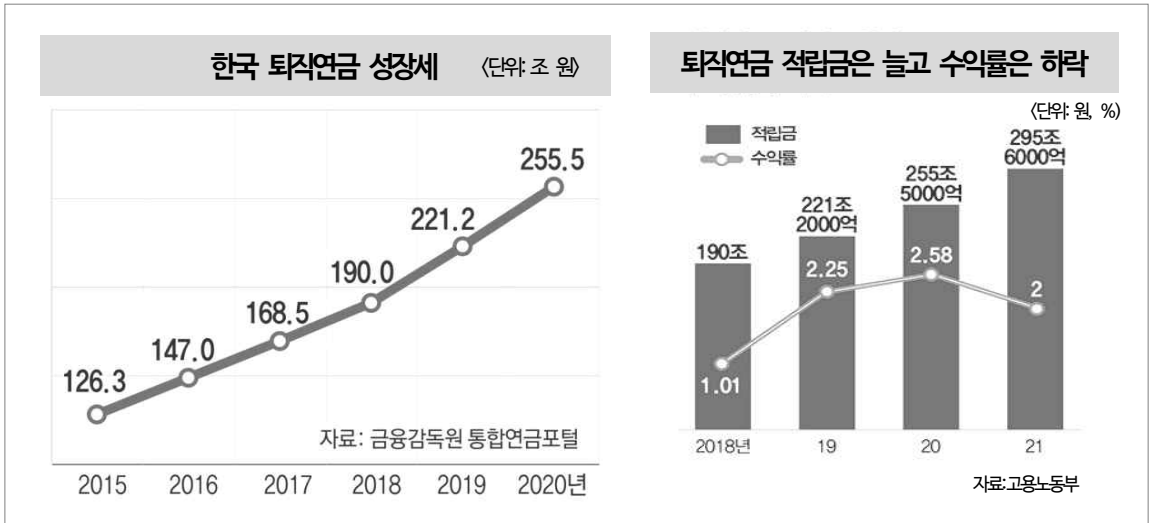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근로자가 퇴직연금 제도의 진정한 주체로 다시 서게 된다. 이제까지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수수료를 내면서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금융회사의 ‘봉’ 노릇을 했다. 제도 도입 이후에는 근로자가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입장이 된다. 디폴트옵션 도입은 금융회사 간 치열한 수익률 경쟁을 의미한다. 근로자는 금융사 가운데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회사를 골라 적격 상품에 가입하고, 표준화된 상품 비교를 통해 손쉽게 운용 성과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 제도는 단순히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넘어 국가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다.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에서 잠자고 있는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활기를 띤 자본시장은 곧 기업과 경제가 성장하는 비옥한 토양이 되고, 근로자는 경제 성장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커지는 퇴직연금 시장, 은행권 경쟁 치열

300조 원 가까이 불어난 퇴직연금 시장을 두고 은행권 영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수익률 부진과 증권사 등 경쟁업종 약진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시중 은행들이 적극적인 상품개발과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앞세워 퇴직연금 고객 지키기에 나섰다. 은행권에서는 IRP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번에 연금 전환 고객으로 면제 혜택을 확대한 신한은행은 물론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IRP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KB국민은행은 오는 6월 말까지 IRP 계좌 내 투자상품 타겟데이팅펀드(TDF)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증정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IRP 연금개시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 기간 1년간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 금액의 70%까지 보상하는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를 시행, 안전성을 앞세워 고객 유치에 나섰다.



막 내리는 J노믹스 결과는?

J노믹스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끝났다. 소득주도성장으로 한국 경제의 대전환을 추구하였지만, 정책이 빛을 보기도 전에 극심한 부동산 불안과 가계부채·국가채무 등 ‘빚’에 관한 문제가 터져 나왔다. 임기 후반기 코로나19 확산에도 경제성장을 하라 푼을 최소화한 점은 문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손꼽힌다. J노믹스의 5년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5년은?

문 정부는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 가치를 올려 한국 경제의 대전환을 추구했다. 보수 정권이 집권했던 직전 9년간 대기업 위주 성장 정책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성장에 한계가 찾아왔다는 생각이 ‘J노믹스’의 시작이었다.

정부의 공적 지출, 노동 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 기반을 두껍게 만들어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포부였다. 이런 취지로 문 정부는 2018~2019년 급속히 최저임금을 올렸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영업 축소는 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그러다 2020년, 임기의 절반을 함께하게 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맞닥뜨리며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흔들린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시장 경제에서 경제 주체들의 행동 원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개념이다. 시장을 무시하고,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려고 한 것은 가장 큰 문제였다. 시장을 무시했기 때문에 정책의 결과가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고, 시장의 기능을 국가가 대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할 수밖에 없었다. 재정을 쏟아부어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나랏돈을 펴고 썼지만 경제 성장에 아무런 이바지를 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정책 운용이 5년 내내 이어졌다.

문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명분으로 나랏빚을 내며 정부 지출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늘렸다. 그럼에도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집권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았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한 2020년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나랏돈을 풀어 충격을 완충하기 바빴다. 경

제 전문가들은 문 정부 5년을 한 마디로 ‘재정 중독증’으로 요약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는 카드 대란,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메르스라는 경제 쇼크를 겪었지만, 문 정부만큼 나랏돈을 풀지 않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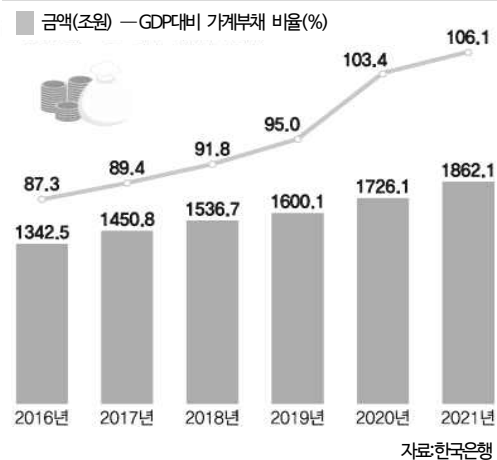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간 지속된 ‘저성장·저물가·저금리’라는 환경에서 출범했다. 가계부채는 증가 추세였지만, 낮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 등 내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5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는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물가는 오르는 ‘저성장·고물가’ 상황에 직면했다. 인플레이션 충격이 확산되며 올해 들어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로 올라서는 등 경기를 둘러싼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8%(136조 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519조 6000억 원 증가했다. 해마다 평균 100조 원 이상 가계부채가 증가한 셈이다.

경제 규모, 성장과 함께 가계 빚은 자연스럽게 증가하지만, 속도가 문제다. 2020년 처음으로 GDP(국내총생산)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은 상황에 이르렀고, 지난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6.1%로 집계됐다. 5년 사이 18.8%포인트 상승했다. 비율과 증가속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금, 보험료 등을 빼고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돈(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배에 이른다. 부채 부담이 내수위축으로 이어지고, 저성장으로 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강화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단계적 도입을 실행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내세워 사실상 직접적인 대출 통제에 나섰다. 전 세대출을 조이려는 움직임에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

가계신용 및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혈세로 지급하는 공무원 13만 명 늘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공무원 17만 명 증원을 내세웠다.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소득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공무원 일자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된다. 공무원 1명을 뽑으면 임금과 퇴직 후 지급되는 연금 지급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이다. 공무원 정원을 한번 늘리면 줄이기 힘들고 인건비를 비롯해 연금 지출 확대 등 국가 재정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수가 13만 명 급증하면서, 공무원·군인 연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 총당부채는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752조 원)에 비해 400조 원 가량 증가했다. 국민 1인당 부담하는 총당부채 부담액도 2016년 1469만 원에서 지난해 2205만 원으로 5년 새 736만 원 급증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부작용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초기 2년간 ‘최저임금 인상’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주된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보였다. 정권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을(乙)과의 전쟁’을 부추기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2년 누적 29%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은 이익 저하, 직원들은 일자리 급감을 호소했다. 이후 임기 3년 차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급격히 꺾여 2020년과 2021년 각각 2.87%, 1.5%에 그쳤다. 고용시장의 저항이 심해지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3%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7.4%)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역대 정부 집권기간 주요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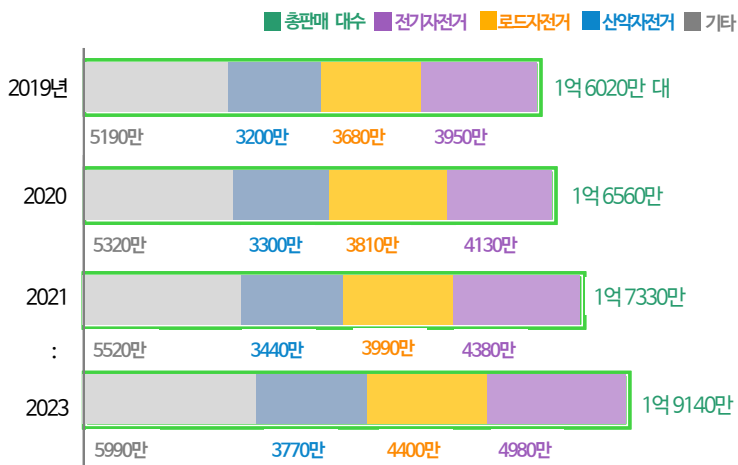
김대중 정부 (1998~2002)	노무현 정부 (2003~2007)	이명박 정부 (2008~2012)	박근혜 정부 (2013~2016)	문재인 정부 (2017~2022년)
1998 IMF 외환위기	2003 카드 대란	2008 글로벌 금융위기	2015 메르스 사태	2020년 코로나19 사태

경제성장률 및 총지출 증가율 연간 평균치



코로나 이후 건강습관, 자전거 시장 커진다

증가하는 전 세계 자전거 판매



자료:PwC 'Global Bike & Bike Accessories Market' 보고서

'세계 최대 자전거 생산국' 중국 수출 급증



세계 공급 부족에 수출 단가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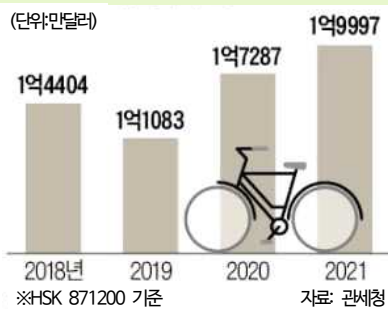
인천의 대표적인 자전거길



세계 전지자전거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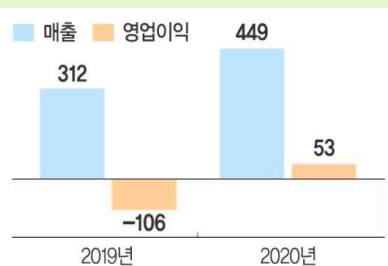
증가하는 자전거 수입



삼천리자전거 실적 현황(단위: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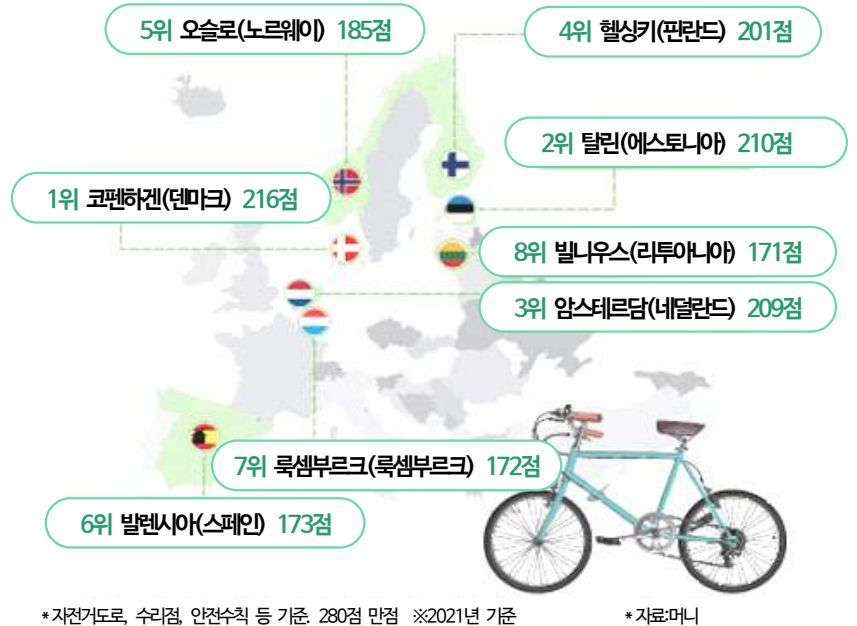


알톤스포츠 실적 현황(단위:억원)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전거 여행하기 좋은 유럽의 도시들



자전거·사이클링 스포츠 역사





사람 귀, 형편없는 설계인가?

우리는 눈과 입을 닫을 수 있는데, 왜 귀는 닫을 수 없는 것일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형편없는 설계(또는 나쁜 설계)라는 주장은 창조론을 공격하고 진화론을 선전하는 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도 중 하나이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만약 인간이 전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면, ‘왜 그렇게 많은 설계적 결함이 있는가’라는 주장이다.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형편없는 설계’로 주장되는 것은, 망막의 거꾸로 된 배선, 결함 있는 무릎, 유인원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네 발로 걷도록 설계된 등, 왼쪽 뇌돌이후두신경 등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아다

형편없는 설계로 주장되는 가장 최근의 것 중 하나는 우리의 귀가 다른 동물에 비교해 먼지, 오염, 물, 곤충, 그리고 다른 외부의 육설로부터 적절히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베르겐 대학의 진화생물학자인 알 기스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

인간의 몸은 오늘날까지 오랜 진화의 과정을 겪어왔다. 눈꺼풀은 눈을 보호하고, 입을 다물면 부스러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 반면 우리의 귀는 열린 상태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바다표범, 코뿔소, 수달의 귀처럼 닫을 수 없다. 왜일까? 예를 들어 물속에 있을 때나 많은 소음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귀를 막을 수 있다면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귀를 닫지 못하는 것은 좀 바보 같지 않은가? 먼지와 이물질로부터 보호도 되고 말이다.

많은 동물은 귀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사실 동물들은 귀를 보호하기 위해 잘 설계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수탉은 귀마개가 내장되어 있다. 수탉은 너무 크게 울어서, 소음 수준은 15m 떨어진 곳에서 제트기가 이륙하는 소음과 비슷한 100데시벨(dB)에 가깝다. 당신의 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내는 소음은 140 데시벨을 넘는다. 이렇게 큰 소리는 그들의 청각유 모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고, 따라서 약 1초 안에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처럼 귀 보호대를 진화시킬 것인가?

인간이 귀 덮개를 진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기스케는 ‘아마도 아닐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인간의 귀는 닫히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특수성은 도구를 사용하고, 보조 기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예를 들어, 공사장 등 주변 소음이 너무 크면, 귀 보호구나 귀마개를 사용할 수 있다. 인간은 현대의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귀의 진화도 진행시키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수탉이 청력 손상 없이 그렇게 크게 울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수탉 귀를 마이크로-CT 스캔을 했고, 수탉의 부리가 열릴 때(울 때)와 닫힐 때(울지 않을 때), 귓구멍의 형상을 재구성하였다. 연구자들은 수탉이 큰 소리로 울려고 부리를 열 때, 귓구멍(외이도)이 완전히 닫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수탉은 필요할 때 작동되는 귀마개가 내장되어 있었다. 연구자들은 또한 암탉은 울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적설계의 명백한 증거이다. 따라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귀에도 지적설계를 가리키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

인간은 이미 귀 보호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인간은 사실 고막이 있어서, 대부분의 먼지, 오염물질, 심지어 물이 귀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뚜껑”은 귀를 보호함과 동시에 물, 곤충, 먼지가 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면서도, 청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설계는 대기 중에서도 물속에서도 최고 성능을 보여준다. 입을 닫을 수 있고, 눈은 감을 수 있지만, 귀는 고막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위해 닫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볼륨 조절

커다란 소음은 사람의 귀를 손상시킬 수 있다. 소음 수준을 낮추는 주요 수단 중 하나는 일부 개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늘어진 귀와 같은 일종의 덮개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큰 소음에 빠르게 반응하는 더 나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 소리 조절은 신체에서 가장 작은 골격근으로 이루어진다. 그 근육들은 귀의 이소골을 경직되게 만들어, 내이로 들어가는 커다란 소리를 줄여버린다. 이 근육들은 한쪽 또는 양쪽 귀가 큰 소리로 부딪치면, 반사적으로 약 10분의 1초 동안 수축한다. 이 기능은 매우 유용하지만, 순간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시스템이 아니다). 총성과 같은 큰 소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른 추가적인 귀 보호 기구가 없다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또한 소리 식별 기능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이들 이소골-경직 중이 근육은 고주파 음을 불균형적으로 차단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 주파수와 같은 중요한 범위에서 청력을 향상시킨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입이나 눈을 닫는 것처럼, 귀를 “닫는” 것처럼 하며 확실히 우수하다.

외이

외이를 닫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동물들처럼(예로 개) 외이를 덮는 피부판을 설계하는 것이다. 문제는 귓바퀴라고 불리는 외이의 주요 기능은 특정 주파수

범위의 소리와, 대화 시에 친구의 작은 목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소리를 모아야 한다.

귓바퀴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깔때기 같은 역할을 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소리를 수집하고 집중시켜, 이도(귓구멍)으로 유도한다. 또한 소리는 귓바퀴에 의해서 나아갈 때, 필터링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은 사람의 정상적인 대화 주파수 범위의 진동을 증강시키고, 배경소음으로 불리는 다른 소리를 감소시킨다. 귀는 가장자리 디자인을 포함하여 이러한 필터링 과정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적 지형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도(귓구멍)는 중요한 3kHz 영역의 소리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머리, 귓바퀴, 이도, 모두 2~4 kHz 영역에서 10~15데시벨의 소리 전달을 최대화하는 하나의 구성단위로서 기능한다.

귓바퀴의 만곡의 정확한 크기 때문에, 특정한 주파수의 소리는 증폭되고, 다른 주파수의 것들은 감쇠되어, 각 개인의 귓바퀴는 음파의 구별되는 자국을 이도(귓구멍)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이 정보는 소리의 인식과 위치측정에 사용된다. 귓바퀴의 모양과 귀 근육의 변화 모두 청각에 대한 구별되는 자국을 만들어낸다. 이 “구별되는 자국”은 우리가 듣는 소리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소리를 내는 데 도움을 준다. 인간의 음향 시스템은 우리가 크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특별한 소리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소리 방향

외이는 다른 측면에서 매우 기능적이다. 즉, 외이는 소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두 개의 귀를 갖고 있어서 음향적 시차가 만들어져서, 효과적으로 소리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음파는 다른 쪽 귀보다 약간 먼저 한쪽 귀에 부딪치고, 뇌는 그 차이를 알아차린다.” 또한 필터링 과정은 소리에 방향 정보도 부가시킨다. 특히, 귓바퀴는 소리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귓바퀴의 능선과 패인 부분은 몇몇 음파를 다른 음파들보다 늦게, 그 근원에 따라 다른 패턴으로 귓속으로 반사한다. 그러면 뇌는 그것을 해독한다.

요약

어떤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눈과 입을 닫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호를 위해 귀를 닫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비현실적 주장인 것이다. 우리 귀의 시스템은 실제로 눈이나 입을 닫는 것보다 훨씬 낫다. 고막은 청력에 지장을 주지 않고, 먼지, 물, 곤충 등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 우리의 귀는 하나의 좋은 설계인 것이다 (창조과학회 제공)



열방의 다이제스트

러, 우크라이나 기간시설 집중 폭격

러시아군이 최근 우크라이나 철도와 발전시설 등 기간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미사일 공습을 벌이자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테러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 우크라이나 철도공사에 따르면 최근 수일간 르비우를 비롯해 중서부의 철도 시설 6곳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최소 40편의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철도 시설을 집중 공략 대상으로 삼은 것은 서방으로부터 지원되는 무기와 물품, 인도적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됐다. 우크라이나 군대 주둔지와 연료·탄약고에도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

영국 국방부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비군사적 목표물을 계속 공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공급망을 깨뜨리기 위한 시도이자 우크라이나인들의 항전 의지를 꺾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했다.

인도 하리아나주, 개종금지법 통과...10개 주로 확산

인도 하리아나주가 개종금지법을 통과시킨 10번째 주가 되었다. 불법 개종방지 법안은 누구도 개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강압, 위협 또는 결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해당 법안이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은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으며, 의원들은 지난 3월 22일(이하 현지시간) 반대 시위를 벌였다. 기독교 인권단체인 릴리즈 인터내셔널은 “이 법은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나눌 자유와 힌두교도가 자유롭게 개종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릴리즈 CEO는 “새로운 법은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신앙을 선택할 권리를 거부할 것이다. 인도가 헌법에 따라 모든 시민의 권리와 종교 자유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연합기독교포럼(UCF)은 2021년을 (인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폭력적인 해이며,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괴롭힘 사례는 486건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고 보고서에 밝혔다.

美 대법, “기독교 단체 깃발 게양 거부 표현자유 침해”

미국 대법원은 보스턴시가 “종교적 견해”를 이유로 시청 앞 게양대에 자신이 이끄는 기독교 단체 깃발을 걸도록 허락해 달라는 활동가 해럴드 셔틀레프 씨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12심에서 승소했던 보스턴시는 시청 앞 게양식은 정부 입장을 발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캠프 컨스티튜션’이라는 단체 대표인 셔틀레프 씨는 2017년 좌측 상단 푸른색 사각형 안에 붉은색 십자가가 그려진 흰색 기 게양을 시에 요청했고 이를 “기독교기”라고 불렀다. 그러나 보스턴시가 특정 종교의 기를 게양할 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하자, 그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셔틀레프 대 보스턴시 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보스턴시 청사 게양대에는 미국 국기와 매사추세츠 주기, 보스턴 시기가 게양되지만, 이곳에서 행사를 여는 단체의 요청으로 일정 기간 시기 대신 다른 깃발이 걸리기도 한다. 보스턴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84개 단체의 깃발 게양을 허락했다.

北, 모든 어려움 과학기술로 타개 강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과학기술 발전이 경제발전이고 인민 생활 향상”이라며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은 ‘과학기술’에 있음을 강조했다. 국가과학기술발전 계획에 수백 건의 국가과제들이 제시돼 있으며,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역할을 당부했다. 신문은 항일 혁명 투사까지 거론하며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이지만 “한목숨을 바쳐서라도 맡겨진 연구과제를 제기일 내에 결속하고 충성의 보고를 올리

겠다는 열정이라면 뚫지 못할 애로가 어디에 있겠냐”라고 강변했다. 또 “(김정은) 총비서 동지께서 지금 이 시각에도 과학 전선의 승전 소식, 국가 중점 대상 과제들을 기한 전에 결속하고 중요 과학 연구 대상 과제들을 100% 수행했다는 충성의 보고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채찍질했다. 북한은 농업 생산량 증대부터 국방력 강화까지 ‘국가 발전’을 위한 거의 모든 부문의 성장에 과학기술이 핵심이라는 기초를 이어가고 있다.

공유킵보드 63% ‘노헬멧’...안전모 누가 구버?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킵보드 이용자에게 안전모 착용 의무가 부과됐지만, 대다수가 헬멧 없이 킵보드를 타고 있다.

한국소비자교육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3~30일 수도권에 사는 공유 킵보드 이용 경험자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킵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쓴다고 응답한 비율은 37.3%에 불과했다. 안전모 없는 전동킵보드 탑승은 범칙금 2만 원 부과 대상이다. 이용자 사이에선 공유 킵보드 서비스 업체가 헬멧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공유 킵보드 업체 20개 중 6곳(30%)만 전동킵보드에 안전모를 비치하고 있으며, 업체 관계자는 서비스 중인 전동킵보드에 안전모를 비치했거나 분실률이 80%에 달하며, 안전모를 주기적으로 회수하는 일에 비용과 인력이 따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동킵보드는 속도가 시속 20km 이상이고 무게 중심이 높아 머리를 다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모 착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4.8%↑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4.8% 올랐다. 특히 밥상에 필수로 오르는 농축수산물도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수입 소고기는 28.8%, 돼지고기는 5.5%, 국산 쇠고기는 3.4% 올랐고 포도도 23%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차질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밀과 옥수수 등의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올

랐고,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조치까지 이어져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외식 물가도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6.6% 올라 또 한 번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2월 기준 서울 지역 김치찌개 백반 가격은 7154원으로 1년 전(6769원)보다 5.6% 올랐고 짜장면도 5346원에서 5846원으로 9.3% 올랐다. 여름철 대표 음식 냉면도 9077원에서 9962원으로 9.7% 가격이 뛰었다.

“어린이 비하 용어 싫어요” 기분 나빠요

인터넷 등에서 어린이를 비하하는 뜻으로 쓰이는 말에 어린이·청소년들의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린이’(주식 투자 초보), ‘요린이’(요리 초보) 등 용어를 쓰는 어른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1위로 ‘어린이를 존중해주세요’(25.6%, 이하 중복 응답)가

뵈었다. ‘어린이도 똑같은 사람입니다’(23.8%), ‘어른들도 한때는 어린이였습니다’(23.0%) 등이다. 어린이를 빗댄 표현 중 비하의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하는 용어로는 ‘잼민이’(70.2%)가 가장 많이 지목받았고, 이어 ‘급식충’(65.8%), ‘초당’(51.0%) 순으로 꼽혔다. ‘잼민이’는 온라인상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어린이를 일컫는 말이다.

월드와이드 신문을 정기구독하세요

유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월드와이드 신문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꾸준히 원하는 장소에서 월드와이드 신문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월드와이드 신문 블로그(<http://blog.naver.com/wwpublish/>)에 방문하셔서 <정기구독>란에 비밀글로 주소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신문이 발행되면 제일 먼저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자

나이가 들면 특별한 병이 없어도 여기저기 온몸이 아픈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통증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닌 질병이다. 통증은 처음에는 몸의 이상을 나타내는 신호로 나타나지만, 3개월이 넘어가면 통증의 신호체계인 신경계가 고장나 그 자체로 만성질환이 된다. 또 다른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성통증에 대해 살펴본다.

만성통증 치료에 '미세동맥 색전술' 효과적

미세동맥색전술(TAME:타미)은 만성 염증성 통증 환자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해 주는 비침습적 시술로 이상환 과장이 2016년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 '관절 통증 색전술 클리닉'을 개설하며 국내 최초로 시행했다. 이 시술은 3개월 이상 지속된 무릎, 어깨, 골반, 팔꿈치, 손목, 발목, 비특이적 허리통증, 아킬레스 건염, 족저근막염, 손발가락 관절염 등 각종 만성 통증 관절염과 근육통 및 건염에 가능하다. 클리닉 개설 이후, 만성관절통증 환자는 물론 근대5종, 럭비, 육상 등 종목별 국가대표선수과 구기종목 프로(실업) 팀 선수 등이 시술을 받았다.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만성 통증을 앓았던 이지훈 근대 5종 국가대표 선수도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두고 타미 시술을 받았다. 이 선수는 시술한 달 만에 출전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미세동맥색전술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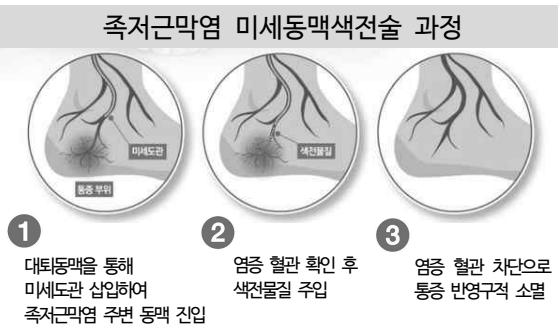
- ① 기존 보존적 치료들인 진통소염제,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은 염증을 일시적으로 줄이며, 장기간 통원치료를 해야 하지만, 타미 시술은 문제가 되는 염증을 없애버리고 외래에서 1회 치료로 3~4년 이상 통증 감소가 유지된다.
- ② 국소마취로 시행한다.
- ③ 당일 시술,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
- ④ 말기관절염 환자 중 인공관절 수술을 받지 못한 환자는 야간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 ⑤ 인공관절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도 타미로 통증 조절이 가능하다.
- ⑥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반된 만성 무릎 통증 환자

도 1회 시술로 통증 없이 지낼 수 있다.

■어떻게 시술하나?

타미는 혈관을 볼 수 있는 X선 조영 장비로, 염증이 있는 부위를 확인한 후, 혈관을 막는 약물(색전 물질)을 집어넣어 염증을 제거한다. 시술은 바늘로 국소 마취한 후, 목표하는 혈관 부위에 바늘을 넣고 그 안으로 또 조영제를 주입할 관(카테터)을 삽입하고, 좀 더 넓은 관을 넣어서 혈관을 넓힌 후 염증을 제거할 물질을 넣는다. 실시간으로 X선 영상을 보면서 시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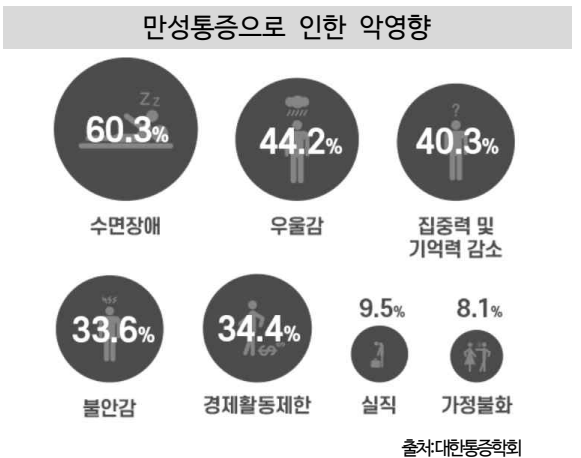
H+양지병원에는 타미 시술비로 100~150만 원 정도를 받는다. 병원에서는 신기술이라 홍보 차원에서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 시술비가 저렴하니 오히려 환자를 많이 받지 못한다. 타미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의료 기술로 등재를 신청한 상태로 신의료 기술로 등재되면, 진료 적용도 가능해진다.



만성통증의 진단

'만성 통증'은 조직의 손상이 치유되는 과정보다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통증이다. 기본적으로 만성통증은 근골격계 손상, 신경 손상, 류마티스 질환과 같은 자가면역질환, 자율신경 부조화, 심리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

인을 100%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60대 이후에서 젊은 성인의 2배, 80대 이후에서 젊은 성인의 3배 이상 유병률을 보인다. 만성통증은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통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나이가 들면 통증으로 아픈 것은 당연하다? (×)
나이가 들더라도 아무 원인 없이 통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통증은 무조건 참아야 한다? (×)
외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급성통증 뿐만 아니라 만성통증도 병원에서 치료해야 하며 제때 약을 복용해야 한다.
- 통증을 호소하는 것은 내 가족을 괴롭히는 것이다? (×)
통증을 조기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점차 난치성 통증으로 발전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 통증 조절을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면 안된다? (×)
심각한 통증은 초기부터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해야 한다. 통증환자에게 적절한 양의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했을 때, 중독이 일어날 가능성은 0.000083%로 매우 낮다.



코로나19가 주는 교훈

mRNA 백신 효과-암·에이즈·독감 정복 나선다

mRNA는 체내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물질이다. 단백질 합성의 설계도인 셈이다. mRNA를 백신이나 치료제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는 1990년대 이후 나왔다. 하지만 체내 면역세포가 mRNA를 이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해 염증을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백신은 병원체 단백질을 체내에 집어넣어 진짜 병원체가 체내에 들어올 때 이를 막는 면역반응을 유도해 항체를 생성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코로나19 mRNA 백신은 독성을 없앤 바이러스를 직접 주입하거나 무해한 바이러스(백터)에 넣어 주입

하는 방식, 항원 단백질을 합성해 주입하는 방식과 달리 항원 단백질을 체내에서 직접 합성할 수 있는 유전물질인 mRNA를 활용한다. 지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변이 바이러스의 유전체 분석이 이뤄지면 그에 맞는 mRNA를 신속히 설계할 수 있다. 향후 mRNA 백신은 타 감염병의 예방 백신으로 활용되거나 새로운 목적으로도 사용되리라 전망된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기존의 역할 외에도 mRNA 설계를 통해 개인 맞춤형 암 백신도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mRNA 백신은 유전자 전달체로서 유

전자 치료 등 생명과학 및 의학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장규모가 작아 개발이 어려웠던 희귀질환의 치료제로도 활용될 수 있다.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드는 기존 신약개발과 비교하면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다. mRNA 백신은 개발도상국의 국지적 감염사태에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실제로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등에 대한 mRNA 백신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mRNA의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만큼 앞으로 mRNA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는 대응력은 높아질 것이다.

유한한 범죄에 영원한 형벌, 너무 부당하지 않은가?

‘고작 7, 80년 동안 지은 죄로 영원히 벌준다는 게 과연 정당한가?’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기 힘들어 하지만,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건 더 못마땅하게 여긴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복음주의권 안에서는 존 스토틀처럼 영혼 멸절설을 주장한 신학자도 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의 랍 벨 목사가, “모든 사람은 결국 천국에 간다”는 말로 지옥이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지옥은 없다>의 저자는 랍 벨 목사가 자신의 책 <사랑이 이긴다>에서 만인 구원설을 설파하며 영원한 지옥이 없다고 주장한 데 큰 충격을 받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지옥에 대해 자세히 연구한 결과를 한테 모았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인간적인 선입견을 떠나 실제로 성경은 지옥에 대해 뭐라고 가르치는가에 초점을 둔 순도 높은 ‘성경적 지옥론’이 담겨 있다.

“우리가 살펴보려는 주제는 당신과 내가 마지막에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무언가를 믿을 때 믿고 싶은 것이어서 믿지는 말라. 또한 어떤 생각을 품을 때 늘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라. 성경적인 것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들에 상반되는 당신의 생각들을 테스트해 보라.”

지옥은 교정과 치유를 위한 곳이다?

<지옥은 없다>의 저자는 이 책에서 성경은 지옥을 영원한 형벌이 진행되는 실제적인 장소라고 가르친다고 강조하며, 그 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만인 구원설은 성경적으로 합당한 근거가 없다

3세기에 오리겐이 옹호한 만인 구원설은 553년 콘스탄티노플회의에서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소수지만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랍 벨이 “최악의 ‘타락한 죄인들’조차도 마침내는 저항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란 말로 다시 이슈화시켰다. 물론 이들 역시 성경에서 자신들 주장의 근거를 든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10-11)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가 아니면 죽고 나서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려고 돌아오시는 날, 모든 이들이 그 사실을 시인하게 된다는 뜻이다. 같은 책에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만 거부하면 멸망하게 되며(빌

1:28),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마침은 멸망(빌 3:19)이라고 거듭 경고한다.

지옥은 죄인들을 교정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형벌은 교정이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형벌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옥은 보응을 위한 곳이며, 개개인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곳이다. 복음서에 기록된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이러한 당대의 일반적인 이해를 배경으로 삼았다. 지옥을 가리키는 헬라어 ‘게헨나’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관용적으로 말세에 악인을 불로 심판하는 장소를 언급하는 말로 사용되었고, 예수님 역시 게헨나에 대한 당시의 대중적인 믿음을 그대로 긍정하셨다.

그러나 만인 구원설자들은 몇몇 성경구절과 단어들을 근거로 지옥이 교정이나 치료를 위한 장소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언급하신 ‘영벌’(마 25:46)의 헬라어 단어, 즉 ‘아이오니오스 콜라시스’는 형벌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단어 중 ‘콜라시스’는 ‘가지치기’ 내지 ‘다듬기’를 의미하는 원예술에서 나온 용어라고 말한다. 따라서 지옥의 형벌은 악인들이 더는 악하지 않을 때까지 일정 기간 그들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한 ‘강한 교정 체험’이며, ‘영벌’이란 이 형벌을 견디는 자들이 마침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교정의 시간을 주신다는 의미라고 말한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헬라어 ‘콜라시스’는 단 세 군데에서 사용되었는데, 모두 분명하게 형벌을 뜻하며, 모든 주석가는 이 단어를 ‘교정’이 아닌 ‘형벌’로 번역했다.

지옥에서의 형벌의 기간은 천국에서 생명을 누리는 시간 만큼 영원하다

<지옥은 없다>의 저자는, 성경에서 지옥의 죄인들이 멸망하게 된다고 언급하는 몇몇 구절들은 영혼 멸절설의 근거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한다. 죄인들의 영원한 멸망에 대해 언급한 구절들을 놓고 영혼 멸절설을 주장해 온 사람들은, 지옥에서 악인이 당할 멸절을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 형벌의 결과가 되바뀔 수 없다는 의미에서 멸절이 영원하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헬라어 ‘아이오니오스 콜라시스’를 분석하면서 ‘-마’가 아니라 ‘-시스’로 끝나는 헬라어 명사들은 그 명사가 가리키는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근거를 들어, 형벌의 결과가 아닌 형벌의 행위 자체가 영원하다는 의미라고 반박한다.

천국이 영원하다면, 지옥도 영원해야 한다

저자는 마태복음 25장 46절, 곧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에 주목한다. 내세에서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그와 나란히 언급된 내세에서의 형벌도 영원히 끝나지 않으리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영원한 불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 동일한 장소에서 받을 악인들의 형벌 역시 영원하다고 봐야 한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좀 더 확실하게 조명된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며 밤낮 켜를 얻지 못한다(계 14:10-11).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역사라고 보는 관점이 지옥뿐만 아니라 천국의 실재성 또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지옥에서 마귀와 그 사자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포함한 모든 악인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림은 천국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림과 유사한 뉘앙스로 대조된다.

형벌의 경중은 죄의 양이 아닌 질의 문제

개개인이 이 땅에서 7, 80년 동안 지은 죄로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공평한가? 이 딜레마는, 죄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데서 풀어야 한다. 성경적으로 형벌의 경중은 죄의 양보다 질에 달려 있다. 모든 죄는 지극히 거룩하고 영원하신 우주의 주권자를 거역하고, 그분의 형상과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 한 번 화를 내거나 거짓말한 불법의 죄질도 영원히 형벌 받기에 충분하다. 이는 7, 80년 동안의 순종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라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나친 호의가 불공평해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 그 순종은 지극히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질적 순종이어서, 짧은 기간에 행해졌더라도 영원무궁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이 땅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저질러진 모든 죄는 아주 작은 것도 질적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봐야 한다. 죄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도 불가해하지만,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분의 사랑 또한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역설만이 유일한 진실이다.



안환균 목사

- 그말씀교회 담임, 변증전도연구소장
- <기독교 팩트체크>(두란노),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가>(규장)

Good News



당신을 참 행복으로 이끄는 리빙웨이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곧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비율 사도는 복음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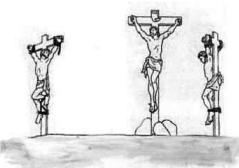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인 참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자기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그(죄)의 길을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란,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을 좇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받게 합니다.

3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그 무지한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삯인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그 죽음에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4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후에도 자기 뜻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죽음 후에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1			3			7		13	
2	2					12	8		
				11					
	4	4					14		12
		5							
6					10		14		
			9				15		15
7	5					16			
	8				17				

가로문제

- 어떤 대상이나 분야를 주제로 하여 벌이는 대대적인 행사
- 비단에 수를 놓은 듯 매우 아름다운 산천
-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몹시 마음이 상함
- 이익을 얻기 위하여 물건을 사고파는 일
-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 돈을 넣고 지정된 단추를 누르면 사려는 물건이나 차표 따위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기계
-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일정한 곳에서 경계 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 머리 위의 솟 구멍이 있는 자리
- 서양식 건물 따위의 정초식 때에, 연월일 따위를 새겨서 일정한 자리에 놓는 돌

- 남에게 인사나 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물건을 줌
- 글씨를 쓰는 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
-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침
- 겉으로는 비슷하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가짜
- 무명이나 용 따위로 된 잠옷
- 입을 다문다는 뜻으로, 말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 어떤 행동이나 제안, 주장 따위가 옳거나 좋다고 판단하여 뜻을 같이함

세로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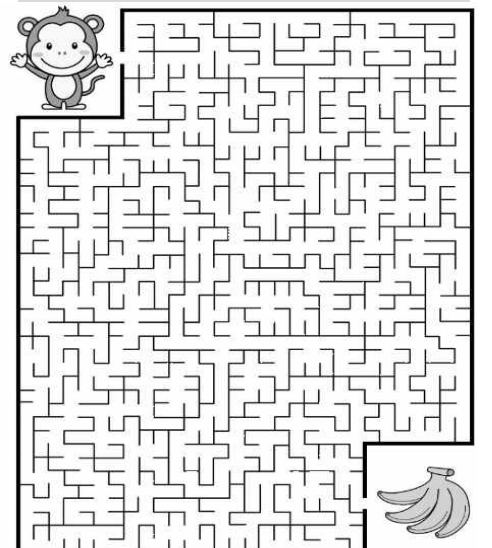
- 축하하는 뜻으로 내는 돈
- 해염을 치면서 놀거나 수영 경기 따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곳
-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이나 물체의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어 주는 우산 모양의 장치
- 인간 발달 단계의 한 시기로, 신체적으로는 이차 성징이 나타나며 정신적으로는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심신 양면으로 성숙기에 접어드는 시기
-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을 파도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각 분야에서 일정한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그 능력을 인정해 주는 증명서
- 펜대 속에 들어 있는 잉크가 펜촉으로 저절로 알맞게 흘러나오도록 만든 휴대용 펜
- 학교나 공장 같은 곳에 팔려 있어 그 구성원들이 먹고 잘 수 있도록 마련한 집
- 드러나지 아니한 사실을 몰래 살피 알아내는 사람
- 사람의 목 윗부분에서 머리털이 나 있는 부분
- 배가 와서 닿는 곳
-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일

- 노래 곡조 끝에 붙여 같은 가락으로 되풀이하여 부르는 짧은 가사의 구절
- 곤란한 문제 따위를 해결하는 실마리
- 육상 경기에서, 길이가 가장 긴 장거리 경주
- 여럿이 함께 지르는 고향 소리

<지난 5월호 정답입니다>

화	합			불	면	증			
장			완	쾌	여	우	비		
품	맛	이		지	옥			상	점
		구	설	수		소	금		
급	제	동			휴	지	통		
선		성	찬	식				편	지
무	속			곤	두	박	질		성
	수	염		증		투	표	소	
	무		추		필	통		창	
	책	가	방			일	기	장	

미로찾기



북한 복음화, 예배의 기름부음, 열방을 향한 뜨거운
선교비전, 차세대 리더십양육과 이 땅의 문화변혁의 리더십을
꿈꾸는 교회



월드와이드교회는 건강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노회 소속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 교회

온가족
천국백성
만들기

이벤트 데이
5월 1일



전교인
노방전도



연령별 모임



◀바나바스쿨
부개목장▶



▶ 목요심야특송



▶ 다드림예배

리더십 사관학교를 마치며



삼산1목장
정명희집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리더십 사관학교를 수료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기간의 코로나 인하여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매주 진행되는 리더십 사관학교는 영적으로 훈련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나약한 모습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성경대로 사는 제자가 되도록 힘써야겠다는 다짐의 시간도 되었습니다. 여러 강의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 성장의 필수 요소는 말씀과 기도인데 저의 기도 생활은 짧은 기도, 얕은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이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라고 하였는데 매일 기도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하

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나의 필요를 채우려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귀찮으실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기도, 강침함의 기도를 해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저의 기도제목 중의 하나는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백퍼센트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채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시간이 길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중보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믿는 모든 사람이 기도로 하나님 왕국을 더 넓혀 가기를 바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참 부러

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쉐마 들으라’라는 말이 성경에 5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창조하였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방법은 성령의 내적존재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말씀이나 기도, 특정상황이나 다른 사람, 꿈이나 환영, 심지어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직접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최상의 길은 묵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성경을 읽기는 하였는데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출근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원포인트 큐티를 매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공동체 식구들과 인사만 하고 지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리더십 사관학교 조모임을 통해 귀한 집사님들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다른 지체들의 기도 제목도 알게 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에도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기도의 분량도 많으신 집사님, 매일 새벽 5시에 온 가족이 가족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시작하시는 집사님, 교회에서 성가대로, 교사로 봉사하시는 집사님, 이 외에 여러 지체의 헌신과 순종이 있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스쿨이 열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에 아쉽기만 합니다. 원하기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믿음을 성장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전도의 새봄을 열어주는 월드와이드 신문을 소개합니다



경제, 연애, 문화, 창조과학, 교육, 의학, 역사, 건강, 성공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이슈를 선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실으실 수 있습니다. (3면) 매월, 교회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여는

창구의 역할이 됩니다.

-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들고나가 길거리 전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자체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물처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 발행, 배달까지 담당해 드리므로

편집부나 출판부가 없는 중·소 교회의 경우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 매월 최소 3천부에서 2만부까지 다양한 분량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032-501-9686

월드와이드신문과 함께하세요

신문이 필요한 분은 10부, 20부, 50부, 100부 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대금은 받지 않으며 원하시면 후원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100-021-800947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와이드교회)

박인용 담임목사 주일설교 안내

- www.wwch.or.kr
- 라디오 극동방송 Fm106.9
- GOODTV(매주 목요일 오전 5시, 매주 토요일 오전 5시 50분)
- C3TV 인터넷 방송
- C3TV 모바일방송 KTF**91-302n
- 스카이라이프채널 Ch414

월드와이드교회 예배시간안내

	부서	시간	장소
주일	1부(축제예배)	오전 09:00	지하1층 본당
	2부(축제예배)	오전 11:30	지하1층 본당
	3부(청년예배)	오후 03:00	지하1층 본당
	4부(테마예배)	오후 05:00	지하1층 본당
주중	화요중보예배	오전 10:15	지하1층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08:00	지하1층 본당
	목요심야기도회	오후 09:00	지하1층 본당
주일 랜드	영아부(해피랜드 1~4세)	오전 11:30	2층 해피랜드홀
	유치부(판타지랜드 5~7세)	오전 11:30	2층 판타지랜드
	유년부(드림랜드 1~3학년)	오전 11:30	3층 드림랜드홀
	초등부(조이랜드 4~6학년)	오전 11:30	3층 조이랜드홀
	중·고등부	오전 1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청년(요셉/기드온)	오후 03:00	지하1층 본당
국제 지역	영어예배	오후 02: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미얀마예배	오후 03: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카렌족예배	오전 09: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월드와이드교회 오시는 길



축복의 불루오션
월드와이드교회
Worldwide Community Church

- 주소: (우)21343/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8-3 도로명) 인천 부평구 삼산동체육관로 82
- 전화: 032)501-9686~7
- Fax: 032)503-9686
- http://www.wwch.or.kr

2022 성령강림절 성령대망 세이레기도회

하나님이여! 우리로 다시 회개하게 하소서

2022 5.23(월)-6.11(토)
월~금: 오후 8시/ 토: 오전 11시, 본당



주강사
박인용 목사
월드와이드교회 담임목사



5.26
김영환 목사
University of Wales,
Lampeter (Ph.D, 2009).



6.8
조영길 변호사 외
현)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2022 선교스쿨

다시, 선교의 불을 붙이소서

2022 6.22(수)-7.20(수)
매주 수요일 오후 7:30(5주간)

대상:월드와이드교회 모든 교인/ 회비:2만원(교재,간식)
신청:월드와이드선교부/신한은행 100-021-800947(예금주:월드와이드교회)



6.22
다시 선교의 불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
김궁헌 목사
(세미언 이사장)



6.29
유대인 선교,
어디까지 왔나
이아브라함 선교사
(온누리교회 파송,
이스라엘 선교사 17년째 사역)



7.6
복음의 최대 장벽,
이슬람은 무엇을 믿고
그들의 실체는?
유해석 교수
(총신대)



7.13
이슬람,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이만석 선교사
(이슬람선교훈련원 원장)



7.20
선교의 길인 북한,
앞으로의 변화
박인용 목사
(월드와이드미션 대표)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교회